



문 : 기침을 할때 간혹 혈담이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지요?

답 : 가래에 혈액이 섞여나온다면 크게 두가지가 의심되는데, 하나는 결핵균에 의한 폐결핵이고 또 하나는 기생충 감염에 의한 폐흡충증의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폐결핵은 결핵중에서 가장 흔히 감염되는것으로서 X-ray를 촬영하여 보고 객담에서 결핵균을 확인함으로써 확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결핵에 걸린것이 확실해진다면 다른 질환보다 치료하는데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료약의 선택 및 투약방법과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한 전염의 방지를 위해 전문의와의 상담이 요구되며 약제를 잘 선택했다 하더라도 결핵은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이기때문에 치료 도중에 얼굴빛이 조금 좋아진다면지 체중이 조금 늘어나거나 밥맛이 좋고 피로감이 덜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완치가 된것으로 오인하여 치료를 중단한다면 치료약제에 대한 균이 내성이 생기게되어 치료를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게됩니다.

또 내성이 생긴 환자는 점차 가격은 비싸고 치료의 효과는 2차 또는 3차 약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결핵은 약제의 사용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와 충분한 영양의 섭취가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질환

이기때문에 남에게 옮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한편 폐흡충의 경우는 가재나 게를 덜 익혀먹게되어 가재나 게에 기생하던 폐흡충 피낭유충이 우리몸에 들어오므로서 감염되는 질환으로 객담검사에서 충란을 찾아내면 어렵지않게 진단이 가능하며 치료약제도 효과가 좋은 편이나 흉역을 앓는 아이에게 가재즙을 사용하던 민간요법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폐결핵과 폐흡충증은 임상증상이 비슷하므로 꼭 X-ray검사와 객담검사를 받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문 : 간염을 앓은 일이 없는데 B형간염검사를 받아보니 항체양성이라고 하는데 가능한일인지 또 믿어도되는지 알고저 합니다.

답 : 우리나라의 B형간염 항원양성자는 약 10% 정도로 보여지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어린이보다는 어른이 더 많이 감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나 감염자의 10~15%는 만성간염으로 이행되며 만성간염의 약 40%는 간경화로, 간경화 환자의 약 25%는 간암으로 발전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B형간염 항체양성은 간염 예방주사를 접종하거나 간염 Virus가 우리몸에 침입된 후 치료가 되어 재차 간염 Virus가 우리몸에 침입할때 자체적으로 막아낼수있는 힘이 체내에 생긴것을 의미합니다.